

중앙로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중구(효빈)의 철도역 | 1932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1호선 | 효빈 도시철도 2호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1. 개요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4. 일평균 이용객
5. 승강장
6. 연계 교통
7. 기타

중앙로역		
1	2	7
창선·곽암해수욕장 방면 창선 ← 0.75 km	1 호선 (114)	장선 방면 내조 1.01 km →
외선순환 소장 ← 1.28 km	2 호선 (238)	내선순환 심동 1.43 km →
중보로·어간중앙 방면 중앙로 3 가 ← 0.28 km	7 호선 (727)	효빈대입구 방면 원동 4 가 0.49 km →
역명 표기		
1 호선	중앙로역 Jungangno 中央路/中央路/中央路	
2 호선		
7 호선		
주소		
효빈광역시 중구 중앙로 5 가 7-9		
관리역		
중앙로관리역		
운영 기관		
1 호선		
2 호선	효빈교통공사	
7 호선		
개업일		

1 호선	1984년 12월 2일
2 호선	1995년 2월 3일
7 호선	1932년 3월 8일
역사 구조	
지하 3층 (1호선) 지하 2층 (2호선) 지상 1층 노면(7호선)	
승강장 구조	
2면 3선 상대식 승강장 (1호선) 복선 섬식 승강장 (2호선) 복선 상대식 승강장 (7호선)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1호선 114번 및 2호선 238번 및 7호선 727번, 효빈광역시 중구 중앙로5가 7-9 소재.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중앙로역 출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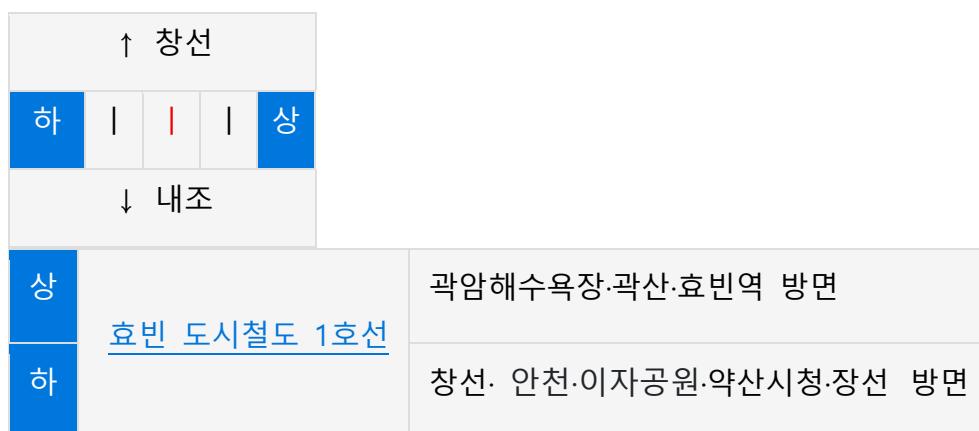
1	효빈초
2	석양식당
3	우리은행
4	
5	중앙삼거리
6	중앙삼거리
7	새마을금고
8	효빈노인복지관
9	새마을금고
10	효빈중등초

11	효빈중동푸르지오
12	중앙아파트
13	효빈은행중앙로지점
14	7 호선 중앙로역
15	교보문고 효빈점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1	2	7	총합	비고
2020년	38,616 명	18,272 명	6,612 명	63,500 명	
2021년	38,826 명	18,838 명	7,513 명	65,177 명	
2022년	50,178 명	21,003 명	8,538 명	79,719 명	
2023년	52,020 명	21,652 명	8,624 명	82,296 명	
2024년	52,032 명	22,322 명	9,374 명	83,728 명	

5. 승강장



↓ 심동		
상	효빈 도시철도 2호선	월천 방면
하		북효빈역·시청·고송교차로 방면

↑ 중앙로 3가		
하		상
↓ 원동4가		
상	효빈 도시철도 7호선	어간중앙 방면
하		중보로·효빈대입구 방면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중앙로역	1, 10, 14, 161, 171, 291, 292, 2222, 9999, A02
역방향	중앙로역 (건너편)	01-1, 10-1, 41, 611, 711, 821, 922, 2222R, 9999R, A02R

7. 기타

- 과거와 현재, 지하와 지상이 교차하는 '효빈의 심장': 중앙로역은 효빈시 구도심의 핵심인 종구 중앙로에 위치한 1호선(1984년), 2호선(1989년), **7호선(1931년/트램)**의 트리플 환승역이다.
- 타임슬립 환승: 지하 2~3층의 1, 2호선 승강장은 80년대 개통 당시의 묵직한 석재와 타일 마감이 남아있어 레트로한 분위기를 풍긴다. 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도로 위를 달리는 **7호선 노면전차(트램)**의 경쾌한 종소리와 마주하게 된다. 지하의 '빠름'과 지상의 '낭만'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다.
- 키라키라(Kira-Kira)한 별들의 무대: 역이 위치한 중앙로 변화가는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룬다. 팬들은 이 화려하고 활기찬 '중심(Center)'의 분위기가 **[BanG Dream!]

Poppin'Party]**의 보컬 **'토야마 카스미'**가 추구하는 **"반짝반짝 두근두근(Kira-Kira Doki-Doki)"**한 세상과 닮았다고 말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역 근처 악기 상가 거리에는 밴드 입문자들이 기타를 사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환승의 딜레마: 지하 깊은 곳에 있는 1·2호선과 도로 위에 있는 7호선 트램 간의 환승은 수직 이동 거리가 꽤 길다. 하지만 7호선 승강장이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트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동선이 SF 영화 같다는 평을 듣는다.
- 지하상가의 미로: 1호선과 2호선을 잇는 방대한 지하상가는 효빈시 서브컬처의 발상지나 다름 없다. 오래된 게임 샵, 중고 만화책 서점, 피규어 위탁 판매점들이 미로 같은 골목 곳곳에 숨어 있어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방문하는 팬들이 많다.